

# 名山大川

“無名の 둔덕도 情붙이면 名山이요  
조그만한 여울도 마음두면 大川이라”

又玄 高裕燮

※ 編輯者註=이글은 일찍이 開城博物館長을 지냈으며 梨花女專·延禧專門에서 강의 하는 한편 우리國土를 편력하면서 우리의 美術文化研究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39세때 세상을 떠난 高裕燮씨의 “名山大川”제목의 글이다. 이름없는 둔덕이나 조그만한 여울 까지 사랑한 그의 自然觀의 일단을 엿볼 수 있고 이름난곳에만 구름처럼 모여드는 오늘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많아 옮겨본다.

산도 불 닦이요 물도 기릴 닦이라, 드러난 명산이 반드시 불만한 것이 아닐 것이며 이름난 대천(大川)이 반드시 장한 것이 아닐 것이며, 하필 수고로이 여장(旅裝)을 짊어지고 감발을 하여 가며 사무적으로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며 무슨 산 무슨 바다에서서 전고(典故)를 뒤적여가며 채언부언(贅言復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초목 산간의 문창을 통하여 조석으로 접하고 있는 무명의 둔덕도 정을 붙인다면 세상에 명산 아니될 것이없는 것이며, 문전 세류의 조그만 여울이라도 마음을 둔다면 대천 아니될 것이 없나니, 그리는 산이 따로이 명색져 있을 턱 없고 그리는 바다가 따로이 지목되어 있을 리 없다.

수년 전 지기(知己)가 있는 바도 아니요 동반(同伴)이 있는 바도 아니요 또 무슨 소망이 있는 바도 아니었던만 공으로 기실원 썩 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의무까지는 문제이지만)가 있는 기회가 있어 단신 상해를 간적이 있지만 범범(泛泛)한 대해의 가도가도 파도만인 것은 저으기 권태 나는 일이었다. 그야사 저녁에 노을이 끼며 수평 저쪽으로 구름이 침전되어 가며 이글이 글 불타는 태양이 차츰차츰 빠져 들어가는 광경이 장절(壯絶)하지 않음이 아니었고, 저녁 고요한 파도 위

로 잡을 듯 뛰어올라 앓을 듯한 수평 위로 만월이 금시금시 솟는 광경이 신비치 아님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 있어선 평범한 승업이었다. 귀로엔 지독한 풍랑을 만나 내 배도 잔물의 세례를 받았지만 풍랑의 나락으로 곤두박질하다가 격랑의 파고두(波高頭)로 헛정 던져져 허공에 뛰는 목선(木船)들의 번롱(翻弄)되는 꼴이 운명은 가없지만 보기 드문 호관(好觀)이었다. 물론 그대로 황토의 뒤범벅이요 파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리듬을 잊었는데 한없이 무한으로부터 무한으로 뻗어 있는 수평만이 묵중히 자약(自若)하게 있다. 동탕(動盪)은 수평 이하에만 있고 수평 이상의 명명(冥冥)한 창공은 끝없이 고요하다.

정극(靜極)과 동극(動極)이 이 때같이 대조되는 적은 없었다. 명하계천(明河在天)인데 성주수간(聲柱樹間)이란 것도 같은 경우이겠으나, 그 크고 장한 맛이 야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수월 임희지(水月林熙之) 같은 기롱기(奇弄氣)나 있다면 일어나 춤도 출 만하였지만 이 사람은 그만 횡(橫)으로 기다래져 버렸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대해를 논할 자격이 없다. 하나 움직이지 않는 육지에 서선 장담코 나서 대해를 풍미할 수 있다. 예로 강화·교동·영종·더적·팔미·송

도·월미의 대소 원근의 도서가 병풍같이 층층첩첩이 돌리고 위위진 가까운 인친 바다를 들자, 아침마다 안개와 해미를 타고 스며퍼져 떠나가는 기선의 경적 소리 등으로 새벽 햇발은 산으로서 밝아 오고 산기슭 검푸른 물결 속으로 어두운 밤이 스며들면서부터 한둘 넷다섯 안계(眼界)로 떠드는 배 배 배. 비가 오려는지 물기가 시꺼먼 허공에 그득이 뜰겨지고 마음까지 우울해지려는 밤에 얄이 떠나는 갈매기 소리 소리. 또는 만창(滿漲)된 남벽(藍碧)이 태양광선을 모조리 비늘져 받아 피어 뜬구름이 창공에 제멋대로 환상의 반육부각(半肉浮刻)을 그럴 때 주황의 돛단 배는 어디로 가려나.

먼 배는 잠을 자나 가도 오도 안하고 가까운 배는 샅받은 역졸(驛卒)인가 왜 그리 서둘러 빨리 가노. 만국공원의 홍화녹림(紅花綠林)을 일부 데포메이트하고 영사관의 날리는 이국기(異國旗)를 전경(前景)에 집어 넣으면 그대로 모네가 된다.

경주 토함산서 아득히 내다보이는 동해 풍광은 낭만이다. 대종천(大鍾川) 어구에서 신라 문무왕이 화신위룡(化身爲龍)되사 호국진병(護國鎭兵)하고 계시다는 대왕암을 내다보는 동해 풍광은 장사일거해 불부환(壯士一去兮不復還)을 까막까지가 넘어 일키운다. 하나 지금 나의 그리는 바다론 이곳이요.

청도(靑島)의 부두로 배가 들면서 차아(嵯峨)히 솟아 펼쳐 있는 준초한 골산(骨山)이 금강·관악·삼각·오관을 곧 연상케 함에 일종의 노스텔지어를 느낀 적이 있지만, 남의나라 명산은 그림이나 사진 외에 얻어본 적이 없다. 곤륜(崑崙)도 히말라야도 에베레스트도 알프스도 그리 그림지 않다. 내 나라 산도 산정에 올라가 보기는 삼각·북악·천마·송악·마니 등뿐이니 내게 있는 백두·금강을 못 오른 주제에 어느 남의 것을 그럴 수 있겠는가.

묘향 영산(妙香靈山)을 찾아가고서도 평지에 펼쳐진 보현·안심(安禪)의 고찰(古刹)만 찾았고 금강에 두 번 놀면서 정점을 오른 적이 없다. 공산(公山) 준령도 멀리 바라보았을 뿐 중복(中腹)의 동화·태고의 고찰에 발은 그쳤고 지리(智異)영산에 놀면서도 화엄 고찰에 발이 그쳤다. 오대 준령에 놀면서도 월정·상원의 고찰에 발을 그쳤고, 태백 준령에 가고서도 중복의 부석 고찰에서 놀고 말았다. 나는 결국 산을 타기 위하여 다님이 아니었고 일을 갖고 배움을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 찾을 대상은 영정(嶺頂)에 없고 중복이하에 있는 것이었다. 영정에 오르지 못한 일종의 변명으로 입산불견산(入山不見山)이니 명산은 가원관이불가설완언

(可遠觀而不可褻翫焉)인저 할 수밖에. 백두를 오르는 자 백두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요 백두에서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함일 것이니 백두에 올라 도리어 백두를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드러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달리면서 본 청북 청남(淸北淸南)이 무비 명산이요 그 중의 묘향영산은 다시 말할 나위 없고 해서낙맥(海西洛脈)의 구월장산, 백두 대간(白頭大幹)의 낙맥인 태백 준령 또 그 낙맥인 속리장산. 이러한 예를 들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근자에 가장 인상깊게 본 것은 개성 천마산이니 명산도 그 보는 위치를 얻어야 한다. 총지동에서 고개턱을 넘어 대영동으로 접어들 제 눈앞에 전개되는 그 산용의 변화란, 만일에 조선서 세간티나가 난다면 이 곳 경광을 잡음으로써 청사 제일엽(靑史第一葉)에 오를 것이다. 헤벌 어저기만한 산, 준초한 산, 비록 장하지 아님이 아니나 결국 흠어진 자연일 뿐이니 잡혀지지만 한 산, 준초한 산, 비록 장하지 아님이 아니나 결국 흠어진 자연일 뿐이니 잡혀지되 장함을 잃지 않고 장하되 단조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은 이곳인가 한다. 실로 영통(靈通)된 산이니 높아 명산이 아니요 깊어 명산이 아닐진대 규모 작다손 치더라도 유선(有仙)한 산이라야 그리워 짐은 고급이 일반이라. 그렇다면 선문(禪門)9산이 가봄직한 명산일게라. 왓, 실상산(實相山)·사굴산(開巖山)·가지산(迦智山)·동리산(桐裏山)·봉림산(鳳林山)·회양산(曦陽山)·사자산(獅子山)·성주산(聖柱山)·수미산(須彌山). 이것은 그 대본(大本)된 자요, 이에서 파생된 선산(禪山)들이 내 비록 선도(禪徒)아니로되 그리워한다.

筆者紹介=仁川에서 1905년에 태어나 1944년 別世. 雅号 又玄, 京城帝大 哲學科에서 美術과 美術史를 專攻, 開城 박물관장, 梨花女專·延禧專門에서 강의하면서 국내 고적을 답사하여 우리 美術文化 연구에 진력. 著書엔「朝鮮의 靑瓷」「松都古蹟」「朝鮮塔婆의 研究」「朝鮮美術文化史論叢」「韓國美術史及美學論巧」「錢別의 瓶」을 남김.